

정부·의료계 “일상 회복 중단 없어야...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필요”

질병청·의협, 코로나19 재유행 극복 공동 입장문 “불필요한 만남 줄이고 모임 인원·시간 최소화”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야” “고위험군 등 백신 접종 대상자 접종 참여해달라”

방역 당국과 의료계가 하반기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질병청과 의협은 “현재의 상황은 엄중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간 수차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치료제 등 대응 수단도 보유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도 한층 높아졌다. 이제 막 시작된 일상 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는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일상 회복을 이어가면서 현재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학교와 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고령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일상 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과 의협은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우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외출, 만남을 줄이고 대규모 행사 참석 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가급적 적은 인원이 모이고, 이 경우 모임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상적 공간에 주기적인 환기, 소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식물 섭취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을 방문해달라고 언급했다. 확진자는 격리 의무를 준수하고 주변 접촉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려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정부 권고에 따라 3차와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질병청과 의협은 현재의 위험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

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먹는 치료제를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고 처방률을 높이며 처방 편의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면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전문가 및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량백신 나올때까지 버틴다?...당국 “지체 말고 맞아야”

확진자들, 접종 차수 늘 수록 중증화율 낮아져 “BA.5 우세화 시기에도 중증 예방효과 더 얻어” “개량백신 안정성 등 고려해 접종정책 구체화”

방역 당국이 26일 개량 백신 도입 때까지 4차 접종을 미루지 말고 신속히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팀장은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 대상자들은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재유행 상황 속에서 4차 접종을 지체없이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현재 방역상황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백신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증과 사망 예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기존의 백신으로서의 4차 접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질병청이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8월 말에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4차 접종

자들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이 더 강한 개량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을 미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에 당국이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존 백신으로 신속히 접종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BA.1, BA.2 돌파감염자에게 기존 백신 추가 접종이 이득이 없다는 결론에 권 팀장은 “BA.5 우세화 시기라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더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며 “그래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확진자 1851만5346명(지난해 4월3일~올해 7월16일)의 예방접종률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접종 차수가 늘어날 수록 중증화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접종 확진자(409만1167명)는 1.51%가, 2차 접종 후 확진자(506만2512명)는 0.45%가, 3차 접종 후 확진자(906만497명)는 0.07%가 중증을 겪었다.

확진자 중에서 접종완료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률이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국은 하반기 접종정책 방향을 8월 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 방역상황, 도입 일정과 물량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권 팀장은 “개량 백신 도입과 일정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이 개발되는대로 향후 접종전략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하반기에 연내에 추가 도입될 mRNA 백신은 6000만회분 정도”라며 “하반기에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확보돼 있고, 또 개량형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 물량들은 모두 개량 백신으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뉴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